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학의 향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생명

어떤 섬의 가능성



이기호

“ 시가 되기는 커녕 일상에서조차 쓰기 거부한 조잡한 노랫말들

모두가 시인이 되는 계절 ‘향수’와 ‘교실이야’가 한 무대에 서던 시절이 그리웠다.

“ 나는 알아야만 했다 / 삶이 가진 최고의 것을 / 두 개의 몸이 그들의 행복을 연주할 때 / 끝없이 곁잡하고 다시 태어날 때 // 전적인 의존에

요 근래 이탈리아 태생의 여가수 카를라 브루니의 음반을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다. 원래 음악을 듣더라도 가수가 누군지, 곡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몇 번 듣고 잊어버리는 편인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달랐다.

후배가 불쑥 던지고 간 음반을 차에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매력적인, 가슴을 쿵당쿵당 질로 뛰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알게 된 카를라 브루니는 놀랍게도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의 부인이었다(물론 재혼이다).

영부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부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녀의 노랫말이었다. 불어에 과묵한 탓에 인터넷에 떠도는 번역본 그녀의 가사를 살펴보니 대부분 문학 작품들, 그것도 영미권 시인들의 작품을 고스란히 악보 위로 옮겨온 것이었다.

일례로 프랑스의 소설가 미셸 우엘벡의 소설 제목과 동명의 노래인 ‘어떤 섬의 가능성’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 삶이 가진 최고의 것을 / 두 개의 몸이 그들의 행복을 연주할 때 / 끝없이 곁잡하고 다시 태어날 때 // 전적인 의존에

들어난 / 나는 안다, 존재의 떨림을 / 사라지기 직전의 망설임을 / 비스듬히 내리쳐는 태양을 / 그리고 사랑을, 모든 것이 쉬운 / 모든 것이 순간에 주어지는 / 시간 한가운데 존재한다 / 어느 섬의 가능성.

이런 노랫말을 영부인 여가수가 부르고,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릴 수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분명 축복받은 천구들임에 분명하다. 시 한 편을 저절로, 고스란히 외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인이 된다(시창작의 첫걸음은 바로 시 외우기에 있다). 시의 운율과 언어들이 고스란히 육화되면, 우리 생의 어떤 가능성과 순간들이 반듯하게 잘린 나무의 단면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시인을 견자(見者)라고 부르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인이 될 수 있다.

한데, 이즈음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랫말을 가만 듣고 있어보면 거 참, 할 말을 절로 잃게 만든다. ‘난 너무 예뻐’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어떤 웃을 입고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할지’까지, 시가 되기는커녕 너무도 천편일률적이며 일상에서조차 쓰기 거부한 어휘들이 때로 출

물하고 있다.

뭐, 그것까지도 인정해줄 수 있다고 치자. 내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건, 언제부터가 굳어진 후렴구의 랩 부분이다. 거의 대부분 영어와 한글이 뒤섞인 후렴구는 관형어처럼 멋있을 한 단어들이 엇비슷한 한글과 결합해 정체불명, 사태 미확인인 가사를 전달하고 있다. 쓸데없이 영어를 쓰고 있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다. 그것이 관형어로 굳어지고 있다는 게, 클리셰처럼 판이 박힌 말들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말이다.

가수는 많되 가사는 똑같은 이 사대는, 어쩌면 작곡의 이 땅의 인문학적 상황은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분명 옛날 노래가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모두의 차이가 사라지고, 모두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현실 말이다. ‘아침이슬’과 ‘저 푸른 초원 위에’가 함께 공존하고, ‘향수’와 ‘교실이야’가 같은 무대에 서던 시절이 그리운 것은 비단 나뿐일까? 바야흐로 모두가 시인이 되는 계절이 당도했지만, 찬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소설가·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도 ‘경제 집중’ 심화됐더니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한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했지만 인구와 산업, 서비스업체 등이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린 것이다. 이런 현실에선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실태는 충격적이다. 인구 집중도는 지난 2002년 47.2%에서 2006년 48.5%로 높아졌고 제조업체 비중은 56.4%에서 56.6%로, 서비스업체는 45.7%에서 48.1%로 각각 늘어났다. 국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체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다. 전국의 ‘잘사는 지자체 50곳’ 가운데 82%, 100대 기업에 본사 95%, 정부투자기관의 85%, 중앙행정기관의 72%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70.9%, 금융

거래의 67%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 집중도는 심각하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비수도권의 몰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광주 47개, 전남 20개 등 모두 844개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과밀화’에 시달리고 지방은 ‘공동화’를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장총량제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인구와 기업, 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멜라민 공포’ 확산... 농장 대응 언제까지

중국산 분유에서 비롯된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가공품이 함유된 수입 가공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중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해태제과 등 과자류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서고 중국산 분유 성분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우유나 분유가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2차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양의 멜라민이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과장은 심각하다. 멜라민 분유사건으로 중국에선 4명의 사망자와 6천여명의 신장 결석 영유아 환자가 발생했고 타일에 수출된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 ‘멜라민 공포’가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검역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멜라민 성분은 수입제품의 통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설사 조사한다고 해도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이 얼마나 많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청의 농장대응도 문제다. 중국의 과당에도 불구하고,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가 수입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부산을 열고 있다. 우유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428종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멜라민 함유 제품이 추가 발견되면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 검역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식탁을 이미 점령한 중국산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백영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섭취가 많아지고 성장이 빨라진 탓에 여드름 증상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내원환자의 평균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무슨 여드름이 벌써 나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계속되는 의사의 설명해도 진료를 받아주지 않는 ‘여드름이 아닌 것 같은데...’라며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경우도 있다.

여드름은 발생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여덟 때부터 늘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드름은 정기적인 치료와 생활습관만 바뀌도 해결될 수 있다. 올바른 여드름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변비, 음주 등 여드름을 악화시키므로 가급적이면 피하고 줄여야 한다. 여드름이 난 부위를 손으로 만질수록 염증이 더 심해지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자국과 얼룩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올바른 여드름 관리법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대개 타고난 피부 성질과 여러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유발 및 악화되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영구적인 흉터와 자국을 남기게 된다.

외모이상주의가 만연한 요즘 얼굴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사춘기 중·고등학교생들이 부모님을 졸라서 혹은 용돈을 모아서라도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

전 같으면 사춘기 여드름은 당연히 나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약국에서 파는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 효과가 뛰어난 여드름 치료제의 등장과 레이저를 비롯한 치료 기법의 발달로 이제 여드름은 관리만

세안이나 클렌징(cleansing)은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잦은 스크럽(scrub)은 삼간다. 피지 억제제나 여드름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 피부 건조는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습제를 이첩, 저녁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또 초콜릿 같이 급격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식품과 유제품은 혈중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가급적 피하고, 육류보다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과다한 자외선은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SPF 30이상의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름다운 피부과 원장>

기고

정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은 중소기업에게는 몇 십배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 환차손, 판매 부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말한다. 제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태종목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체 수에서 99.9%, 종사자 수 8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신용카드의 경우도 소기업에게는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영세업체는 카드회사의 협상력 부족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 물론 수수료율 인하가 자주 매스컴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메이지급 카드회사 상대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른바 중소기업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카드전표 매입회사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인하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처럼 현금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만큼 덜 받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지 않도록 신용

중소기업부 조속히 신설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 지역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하청 기업이 대부분이다. 하청, 재하청 등 많은 제조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업체는 운영은 대기업의 재제기에도 중병을 앓을 정도다. 지금 모 대기업처럼 몇 달째 과업이 계속되면 인손을 놓은 채 직원을 월급 걱정만 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이때 손을 내미는 금융기관은 대기업과 달리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담당부서 및 직원은 중소기업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들의 말과 권태로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하청업체의 재무제표까지 요구하여 계약체결 시 납품단가 산정에 이용한다고 보여진다. 죽지않고 숨쉴정도만 주겠다는 심산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관행적인 불평 등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는가? 눈밖에 나지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알아서 하는 게 최선이다. 중소기업 경쟁력은 대기업의 경쟁력이요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하다는 걸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한다.

카드업법도 지체없이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소원을 풀어주고 정책이 반영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은 중소기업청이 할 수가 없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일 뿐이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대립적인 관계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대기업 재취업해 자기의 진정을 향해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답은 한가지다. 정부가 적극 나서 중소기업청 조직을 흡수한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이 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일자리 늘리기에도 일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비전이 있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면 그 곳에 몸담을 젊은이는 얼마든지 있다.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적극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우사>

스낵류 과도한 공기 주입, 소비자 눈속임 말라

스낵류 과자봉지를 만져보면 과자 내용물은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채 공기를 주입해 그야말로 팽풍이배처럼 팽팽하게 만들어냈다. 아이들도 두툼한 과자봉지를 잡아 뜯었을 때 공기가 빠져서 반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물을 보면서 놀상 실망을 하곤 한다. 그리고 한봉지 더 사달라고 조른다.

제과업체들은 내용물을 보호하고자 빈 공

간을 많이 두고 공기를 채워 봉지를 부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내용물이 팽팽하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소비를 현혹하려는 알뜰한 상술은 사라져야 한다. 현재처럼 쓸데없이 봉지를 크게 하던 포장원가와 물류비용만 더 늘 것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산수1동

無等鼓... 성화(聖火) ... 1952년 4월 20일 ... 1950년 11월 29일 ... 1928~1948년까지는 단순히 '올림픽의 불(olympic fire)'이라고 했지만, 1950년에는 '올림픽현장에서 '성화(sacred olympic fire)'라고 규정해 대회 의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잡았다.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1951년 제 1회 뉴델리대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